



# 사료값 시비

박 중 언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

정부의 6.28 환율인상 조치후 7.10에 6~12% 사료값 인상을 하였고 7.15에 일단 환원하여 거래를 하다가 한달도 못되어 다시 올리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사료값이 오르면 양계업계도 어느 정도 정비되므로써 생산물의 수요공급이 적정화되어 양계업계는 더욱 활발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의 근거는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는가를 사료업자나 양계업자로서 다같이 생리적인 면에서 반성해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체념상태에서 강건너 불구경을 즐기고 있고 또 다른 견해로서 환율이 오르건 사료값이 인상되건 간에 자기는 고리의 이자를 써서라도 다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아연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료값 인상 요인을 추적해 보면 더욱 흥미할 따름이다. 그러면 환율인상의 배경과 배합사료 원료의 국제시장 사정을 보자.

## 환율인상의 배경

『지금까지 저환율이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고도성장을 뒷바침 해야할 외화의 충족과 물자 도입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다.』

64년 5월 환율이 130대1에서 기준율을 255대로 올리면서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율변동의 역사는 외부압력에 의한 변동의 역사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196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자가재생산의 기반을 외자에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한 65년 외자도입총액은 2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물가상승율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 환율이 실제보다 저평가되므로써 오는 이윤폭이 커지자 정부의 외화유지정책과 함께 차관이 급

진적으로 늘어났고 현재 40억 달러선에 육박하여 65년 무역수지 적자는 2억8천8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는 10억4천만 달러로 확대된 것이다.

『공식환율과 공식환율에 대한 금융지원과 내국세 및 수출용 원자재, 과세감면을 포함한 수출실효환율이나 공식환율에 수입관세를 더한 수입실효환율 그리고 실세환율간에는 심한 격차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공식환율 보다는 수입실효환율이 높았고 수입실효환율 보다는 실세환율이 높았으며 실세환율 보다는 수출실효환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그간의 변동환율운동은 수입 촉진적 이었고 무역역조는 계속 늘어갔다. 또한 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5월말 까지 우리나라 도매물가는 58.1% 올랐음에 반하여 그간에 환율은 20.3%가 올랐을 뿐이며 그도 또한 68년과 69년에는 전혀 올리지 않고 70년에서 71년에 이르는 기간에 오른데 지나지 않았다. 한편으로 이로 인한 외자 물자도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에 의한 외환수입의 증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였지만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를 통한 수출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수출을 조세·금융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추세로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입이 같은 속도로 늘어나고 외자가 계속해서 저환율을 틈타 들어온다면 결국 무역역조는 시정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상태로는 수출지원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은 힘겨운 형편이었고 현행 지원체제를 확대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수출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다 대 월남 외화수입의 감소 전망과 가득율이 저하되어가는 공산품 수출증대에 따른

원자재의 대체 필요성이 막바지에 이르러 수입 구조의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불가피했고 증가일로에 있는 외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 자본거래 비중이 경상거래에 압박을 주어 더욱 부채질하게 된 것이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가 환율을 실효환율수준까지 대폭인상하고(1달러당 4백원 이상선) 그대신 수출면의 지원정책과 수입면의 특관세등 규제를 줄여 환율기능을 회복시키도록 권고하지 않아도 우리사정이 환율 현실화가 다급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이번 6.28조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된 환율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채의 원리금상환 부담과 그 심리적인 등으로 물가상승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 대미불 환율의 추이 단위: 원

적용 년월일	공정환율	비고
1964. 5. 3	256.53	단일 변동율제 채택
1965. 3. 22	256.53	" 실시
1965. 12. 31	272.60	
1966. 12. 31	272.00	
1967. 12. 31	275.00	
1968. 12. 31	281.90	
1969. 12. 31	305.20	
1970. 12. 31	317.70	
1971. 6. 26	328.70	
1971. 6. 28	371.60	환율 12.9% 인상

배합사료 원료사정

배합사료 원료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옥수수 밀등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에 있어서 외국에 의존도는 계속 늘어가 근래에 와서는 어분 대두박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수출국인 미국의 작황은 작년초 한파가 휩쓸어 미시시피강 하구가 동결되어 선적할 수가 없었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우리나라에서는 선적해서 도착까지) 옥수수 파동을 경험했다. 또한 수확기에 와서 엽고병이 옥수수 지대를 엄습하여 수확감

소를 가져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시장(시카고)의 옥수수 시세는 점차 상승세를 보였고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선박운임·시카고시장의 투기성등의 요인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부두노조의 파업으로 선적기일이 늦으므로써 수송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밀의 경우는 미국 이외 알제틴 호주의 작황이 좋아서 현재로서는 문제시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어분 또한 페루시장 등지에 재고가 풍부하여 안심해도 좋다는 보도가 있었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옥수수로서 이는 미국의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인즉 미국에서 재배면적을 늘리던가 엽고병 항병증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파동은 연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시카고 옥수수시세 북셀당 센트

1970. 1	124~127	1971. 1	156~160
2	123~128	2	153~160
3	121~126	3	152~158
4	124~131	4	146~153
5	130~134	5	148~153
6	132~141		
7	135~141		
8	134~156		
9	143~157		
10	139~147		
11	138~150		
12	150~157		

이상과 같이 국내의 사정을 보건대 이는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배합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코스트를 낮추는 데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한다.

이 기회에 배합사료 협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생산판매중의 경비를 낮추기 위하여 회원간에 그룹별 통합을 하던가 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이제까지 양축업자에게 없었던 서비스를 철저히 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협조하므로써 양축업자도 협업단지를 이를 기회가 와서 유통과정에서 중간마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